## 투데이 칼럼

# 다극화 시대의 과제

정 복 규
논설위원

국제사회가 빠르게 '다극화 체제'로 변해가고 있다. 특정 강대국에 을인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열강 중 하나에 의존하기보다는 등거리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다.

그런데 한국은 최근 미국 동맹 비중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그리고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한국이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한 한국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검토' 이슈가 돌출하며 러시아도 반발하고 나섰다. 기존의 우리 입장과는 맥이 다른 러시아·중국을 자극하는 발언 때문이다.

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한·러와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노골적 '미국 편중' 외교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점점 커진다. 현 정부는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면서 한·미·일 공조에 매달리고 있다.

하지만 미국 중심의 편향 외교는 주변국을 '적'으로 돌리게 된다. 중·러가 북한과 군사적 밀착을 강화할 경우 한반도 위기를 오히려 고조시킬 수 있다. 당장에 러시아에 진출한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160여 개 한국 기업의 운명이 불안하다.

최대 무역적자국으로 돌아선 중국과의 경제 협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금 한국 경제에 봉착한 최고의 난제는 대(對)중국 수출 부진이다.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30년간 한국의 황금 시장이었다.

이제 그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어 최대 무역적자국이 됐다. 한국 수출 전체가 온전할 리 없다. 한국의 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74%에 머물러 글로벌 금융위기가 강타한 2008년 2.61%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7년 3.23%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세계 시장에서 수출 점유율이 0.1% 포인트 하락하면 약 14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중국의 '리 오프닝(Re opening, 경제 활동 재개) 효과'가 지연된 데다 기대보다 약해지고 있다. 대(對)중국 수출 부진 원인은 단기적으론 중국 경제의 침체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0%에 그쳤고, 석유와 석탄 등 에너지원까지 포함한 수입 증가율은 1.1%였다. 중국의 성장이 둔화하면서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이 크게 줄었다.

한한령(限韓令) 같은 각종 규제로 한국 게임 등이 중국 시장에서 대부분 밀려났다. 한국의 중간재를 수입해 가공 후 수출하는 상호 보완 관계도 약화됐다. 중국과의 기술 경쟁력 격차를 유지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설 자리가 급격히 좁아진다.

개도국은 기술력을 길러 수입 대체에 힘 쏟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다. 한국이 일본을 쫓아간 것처럼 중국도 한국을 추격해왔다. 대(對)중국 무역적자의 근본적 원인은 중국의 산업고도화에 따른 한국의 기술 우위 상실에서 시작되었다.

대중 수출을 늘리려면 중국에서 수입이 늘어나는 분야로 수출 품목을 바꿔야 한다. 최근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 속에 한국은 최전선에 뛰어들었다. 역대 모든 정권은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4대 강국과의 균형 외교를 추구해왔다.

국제 분쟁지역에 개입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는 항상 있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평화'를 내세워 이를 따돌렸다.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 무기 제공은 법률 위반이고, 또 국내 여론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미국을 설득했다.

미국과 한국의 국익은 다르다. 한·미 동맹의 목적은 국익과 안보다. 동맹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미국과는 군사동맹을 견고히 유지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와는 친선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어느 한쪽을 무시하고 중국과 미국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위험하다. 다극화 시대에 '미국 을인' 외교는 지양해야 한다. 초강대국이 분열할 때는 생존법이 절실하다.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 긴장이 고조되면서 점점 많은 나라들이 이들 3개 강대국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으려는 외교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 사 설

### 누리호 첫 실용위성 탑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4일 세 번째 우주 비행에 나섰다. 이번엔 모형이 아니라 실제 위성을 싣고 갔다. 나로우주센터 조립동의 문이 열리고, 길이 47미터, 아파트 15층 높이 '누리호'가 특수 이동차량에 실려 밖으로 나왔다.

발사대까지 거리는 1.8km이다. 충격 최소화를 위해 사람 걸음보다 느린 속도로 비탈길을 올라 1시간 반 만에 도착했다. 전원과 연료, 산화제 등을 공급하는 케이블인 엄빌리칼, 즉 '누리호'의 탯줄을 연결하는 작업도 끝났다.

이번 3차 발사는 모형 위성이 탑재됐던 2차 때와는 달리, 진짜 위성을 싣고 가는 첫 실전 발사다.

발사 13분 후 고도 550km에서 주 탑재체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시작으로 위성 8기를 차례로 분리하면 '누리호'의 임무는 끝난다.

실용 위성을 우주 궤도에 안착시켜, 발사체로서 성능을 입증하는 게 '누리호'의 가장 큰 목표다. 한편 누리호 발사 지난 2차 때는 날씨와 기술 문제로 발사가 한때 미뤄지기도 했다.

발사 10분 전부터 자동 시스템이 작동돼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육상에선 발사대 중심으로 반경 3킬로미터 이내에 출입이 금지되고, 해상에선 비행 방향으로 폭 24킬로미터, 길이 78킬로미터 범위에서 출입이 통제됐다.

위성을 목표 궤도에 딱 맞춰 올리려면 예정 시각 전후 30분 안에 반드시 발사를 마쳐야 한다. 앞서 두 번의 발사는 누리호를 우주로 띄우는 시험 발사 성격이었다. 이번 3차 발사는 진짜 위성을 궤도에 펼쳐 성능을 검증해야 한다.

발사한 지 20분 뒤면 누리호 비행이 종료되고, 궤도에 안착한 위성 8기와는 발사 1시간 뒤쯤 교신을 시도하게 된다. 우주 항공 국가로 확실하게 발돋움할 때이다.

### 러시아의 한국 경고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경고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한국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이후 러시아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대량 학살 등이 벌어질 경우라고 한정했지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데 대해 러시아는 두 나라 관계에 극도로 부정적일 거라고 다시 경고했다.

크렘린궁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한다면 분쟁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이라며 경고 했었다. 러시아 외무부는 수위를 높여 "반러시아 적대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국 관계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안보와 관련한 러시아의 입장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이 바로 한반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맞대응 조치로 북한에 최신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도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하라는 입장을 냈다.

이는 북한 문제를 끌어들여서 압박하려는 걸로 보인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강조하면서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러시아는 북핵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등을 고려해서 한국이 굉장히 신중한 자세를 유지할 걸로 생각을 했다. 그런데 상황이 변하자 한국이 무기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의 수준에서 북한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 많은 군사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경고성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가 계속되는 한,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은 더 강해질 것이다. 한반도 긴장도 더 높아질 거란 우려가 많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독자제언

### "농번기, 농기계 안전하게 운행하세요"

농촌에서는 여전히 농기계인 경운기는 온가의 필수품으로 농번기에 없어선 안될 중요한 운송수단이며 교통수단이다. 대부분 농기계는 어르신들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다른 차량과 부딪힐 경우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운전을 준수하여 운행해야 할 것이다.

첫째 운전자는 도로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속이나 무리한 추월을 하지 말아야 한다. 경운기 등 농기계는 차량보다 느리고 후미등이 없어 야간에 식별이 곤란해 추돌사고 발생 시 생명이 위험하다.

둘째 영농철 농기계를 운전하는 농민들도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농기계를 운행해야 한다. 농기계에는 운전자만 탑승하고 좌석 옆이나 적재함에 사람을 태워서는 안되며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셋째 경운기에 경광등이나 야광 반사지를 부착해 야간 운행 때 추돌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야간 주행 시 반드시 등화장치를 점등하고 반사판을 부착해 차량 운전자에게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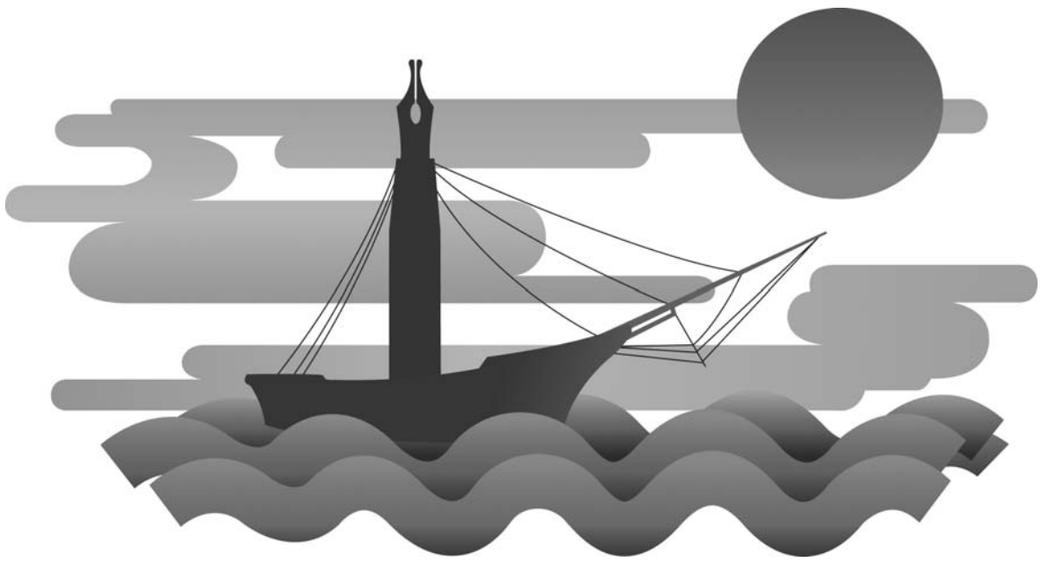
무엇보다 농기계 교통사고는 일반 차량에 비해 중상이나 사망 등 피해가 심각해 농기계 운행 시 안전운행을 준수하여 운행해야 할 것이다.

허만옥 고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감

##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 ITTF '이집트컵' 전달 받은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

유승민(오른쪽) 대한탁구협회장이 28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2023 국제탁구연맹(ITTF) 세계탁구선수권대회 폐막식에서 '이집트컵'을 전달 받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다음 대회는 2024년 2월 부산에서 개막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